

간협, PA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 발표

낮은 의료법 개선 간호사-의사 협력체계 마련해야 문제 방지 시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

최근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대형병원 압수수색을 벌이며 간호사에게 불법의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0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PA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돼 있지 않으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정부가 PA 문제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방지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방치해 온 PA 문제를 두고 형사적인 해결만을 강요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첫째,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고,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간호사-의사 협력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회를 통해 P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작 6월 협의회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결국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름만 있을 뿐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PA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며,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의사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원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며 PA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수준을 개선해야 간호사에게 더 이상 의사 업무가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PA 문제의 근본원인인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셋째,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정부는 그간 의료법 상 간호사 배치기준 미준수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실태를 조사하고,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는 의료기관만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PA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합법의 단계를 아슬아슬하게 견도록 강요받고 있는 낮은 법제를 정비해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사-의사 협력체계를 개선하고,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해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PA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보건교사 배치 확대 추진 신경민 국회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학교보건 현장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대규모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보건교사를 둔다'로 돼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 단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경민 국회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학급 수가 많은 경우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건교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교사회는 그동안 전문적인 학생건강관리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대규모 학교에는 2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최유주 기자 yjchoi@

간호 소셜 콘텐츠 창작 발표회

간협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와 공동협력으로 '간호 소셜 콘텐츠 창작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표회'를 10월 8일 개최했다.



간호 소셜 콘텐츠 창작 발표회 모습

대행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간호사들의 노동환경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간호사 인식 개선'과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홍보' 주제로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 3편이 발표됐다.

최우수상은 간호사들이 사라졌을 때 혼란에 빠진 병원 상황을 긴급뉴스 형식으로 제작해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여준 '비기너스(Beginnurse)'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간호사를 존중해주는 환자의 모습을 담은 'FOR THE NURSE BY THE NURSE'팀,

환자의 어린 자녀가 간호사를 롤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담은 '사람이 있다. 꿈이 있다. 우리가 있다.'팀이 받았다.

이들 영상물은 앞으로 SNS를 통해 널리 배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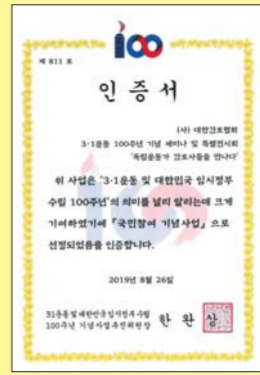
심사위원들은 "간호현장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이해한 열정이 느껴져 인상적이었다"면서 "영상물 제작 아이디어도 좋고 완성도도 높아 감동적으로 잘 봤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김영경 제2부회장, 손혜숙 상근이사, 김의경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장이 참석했다.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안순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정 철 컨셉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간협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만나다' 국민참여 기념사업 선정돼 인증서 받아



올해 3·1운동 100주년 맞아 세미나 및 특별전시회 개최

대한간호협회가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만나다' 주제로 개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 및 특별전시회가 '국민참여 기념사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

국민참여 기념사업은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활동에 대해 인증하는 것이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 인증하고 있다. 추후 기념백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올해 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었으며, 특별전시회를 2월 26~28일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세미나 및 특별전시회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한 간호사들의 활약상을 되돌아보고, 34인의 고귀한 이름과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내 간호교육을 통해 배출된 간호사들은 전문직임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으며, 지식인으로서 사회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했다. 일제강점기 엄혹한 시기 뜨거운 민족의식과 기개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구국의 일념으로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은 독립만세운동, 군자금 모집, 적십자 활동, 사회운동, 첩보활동, 비밀연락, 독립군 규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군대해산 항전에서 헌신하고 있다. 추후 기념백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서울 종로 앞 만세시위를 주도했으며, 간우회를 통해 일제에 항거했다. 러시아 연해주, 만주 등 일, 중국 상해 등 국외에서도 항일운동과 간호사 양성교육에 힘썼다.

정규숙 기자 kschung@

2019년 11월·12월 교육 개척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2019년 11월, 12월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임상간호사의 이해 및 간호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2019년 12월 4일(수)
인원	각 80명	
장소	KNA연수원	
신청기간	2019년 10월 1일(화)~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 (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교육 해당 프로그램명 검색
→ 신청 및 결제

2차 금연광고 방영 금연의 가치와 효과 전달

보건복지부는 올해 두 번째 금연광고인 '금연의 가치'편을 전국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지상파를 비롯해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 온라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1월 11일까지 방영된다.

앞서 1차 금연광고에서는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분능' 주제로 금연분능을 깨우는 일상 속 상황을 전달했다.

2차 금연광고에서는 금연분능을 깨워 얻게 되는 금연의 효과와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금연을 시작하고 2일째, 7일째, 1개월째, 6개월째, 1년 후 등 금연 후 흡연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변화를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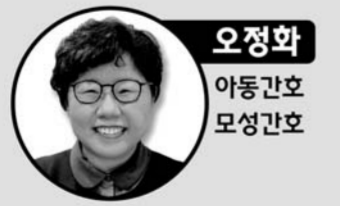
최유주 기자 yjchoi@

2020 보건교사 특강

최신 동영상 강의 수강신청 및 접수중



노성신
기초간호과학
응급간호
학교성인질환
노인간호



오정화
아동간호
모성간호



김희영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정신간호

3인의 전공·전문 교수진의 검증된 강의

- 간호직 공무원,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검증이 완료된 3인의 전문교수진
- 최신 출제경향을 집중 분석, 제대로 된 강의로 준비완료
- 10년 이상의 다양한 현장강의 경력 [현재 진행중]
- 경쟁교재 및 강의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준비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 수강료



보건교사 스터디 카페
바로가기 QR코드

교원인용학원 강의 만족도 부문 1위 해커스임용

믿고 듣는 클래스가 다른 강좌!

2019년 수석, 차석, ~5등 이내
31명 합격!

합격 지역!
경기 초동, 경기 중동, 인천, 부산 중동,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충남, 충북, 경북 초동, 전남, 전북, 제주도

김기영
전공보건

10-11월 실전모의고사
10월 4일(금) 개강!

- 100여 명 합격사례, 합격수기가 입증한 강의!
- 전 영역 실전 서답형 문제와 풀이 진행

신태식, 전태련, 이지원
3인 3색 교육학 논술
실속! 최종모의고사 개설 4~5주 완성
10.4(금)~신청 접수

해커스임용 teacher.hackers.com
본관: 노원구 마래로15길 68관: 노원구 마래로15길 68호
02 566 6860

커넥츠 임용단기

전공보건 신회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23년의 합격 노하우!

교수님 약력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前) 서울보건 임용수석합격
前) 서울초등보건교사
매년 전지역 합격자 다수 배출

임용단기 학원 체계적인 관리에
맞춘 역할 실전 연습을 더해 합격의 길로!
모의고사반 인강제공/한눈검커피/자습실/사물함제공

임용단기 온라인 파이널 프리패스
단과 2개보도 저렴한 가격, 60만원대*
전 강좌 무제한 반복수강

커넥츠 임용단기 imyong.connects.com

카톡 플러스 친구 | 임용단기 온라인
학원문의 | 010. 4402. 6521